

행복한 **책** 읽기

랜드 포시 '마지막 강의' <살림 권>

고대 그리스의 서정시인인 바킬리데스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그가 미리 아는 죽음'이라고 했다. 이는 인간은 죽을 앞에서 결코 초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장함에 걸려 시한부 삶을 선고 받은 랜드 포시는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에 꿈을 이야기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과 미래를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가야한다면 그 고통은 배가 된다.

랜드 포시도 그랬다. 그는 적어도 이십여 년은 더 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많은 것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전해 줄 수 있을까하다가 마지막 강의를 하기로 한다. 자신이 화가였다면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음악가였



선택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미 둘러진 카드의 패는 바꿀 수가 없으니 손에 쥐고 있는 카드로 승부를 걸어야 하겠지요.'

이렇듯 시한부라는 자신의 운명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죽음이 아닌 삶에 대해서 강의한다. 그는 마지막 강의의 제목을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로 정하고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랜드 포시는 죽음과 싸워서 이긴 영웅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꿈꾸어 왔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별인사

다면 작곡을 했겠지만 강의를 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보통 제목에 마지막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눈물샘을 자극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자신의 강의를 들으러 온 몇몇은 책장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궁급해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아예 자신의 간 CT 촬영 사진을 보여주며 약 열 개 정도의 종양이 있고, 자신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석 달에서 여섯 달 정도 남았는데 벌써 한 달을 써버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각각의 종양에 빨간 화살표를 입력해서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준다. 그리고 말한다.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이제 어떻게 대응해 할지

서 최선을 다했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다.

그의 어릴 적 꿈 중에 디즈니의 이매지니어 퇴가가 있다. 어린 시절 디즈니랜드를 구경하게 된 그는 디즈니사에서 일하겠다는 꿈을 갖게 된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마친다. 그러나 디즈니사에 입사하는 것은 녹록치 않았다. 그는 디즈니사 직원 대신에 카네기 멜론대학교 교수가 되었지만,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디즈니사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깔려있다. 그러나 유쾌하면서도 희망적이다. 아마도 랜드 포시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바라는 모습일 것이다. 책을 다 읽고 나자, 문득 그의 아이들에게 메모를 한 장 남기고 싶어진다.

'너희들도 네 아버지처럼 부모 제 비평기에서 승리했지요.'

나 정 이

199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자

사설 갤러리의 약진

편안한 공간에서 폭넓은 전시... 지역미술계 밀거름



김병중 작 '수탉'

예술과 쉽 공존 '제희(濟禧)갤러리'

한국화가 김병중 '생명의 노래' 전·사진작가 구분창 초대전

어느 때보다 미술 시장이 어렵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입버릇처럼 미술관과 갤러리를 찾는 사람들이 줄고, 소장품에 대해 작품을 구입하는 컬렉터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광주 미술계가 다시 한번 미술 시장 부흥을 꿈꾸며 움튼 거리가 시작됐다. 지역에서 만나기 힘든 작가들을 초대해 전시를 열거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여는 갤러리들이 그 밀거름이 되고 있다. 광주지역 사설갤러리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문을 연 '제희(濟禧)갤러리'가 대표적이다. 20여 년 이상 우정을 나눈 동갑내기 친구 화가 신수정(45)씨와 김진희(45·세광기업 대표)씨가 양육직을 개조해 만든 이 갤러리는 22일부터 한국화가이자 문학가인 서울대 김병중 교수를 초대해 '생명의 노래'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다음달 9일까지다.

'자연과 생명'의 화가로 불리는 김 교수가 지난 2004년 광주비엔날레 기간 특별전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 광주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개인전이다. 김 교수는 북한 자투로 생명에 너지를 분출해온 작가다. 지난 30년간 종교적 휴머니즘과 평화 그리고 생명, 서정의 울림을 담은 '바로 예수', '생명의 노래', '길 위에서' 연작을 선보였다. 런던 대영박물관 등이 김 교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미, 북아프리카, 네팔 등을 여행하고 돌아와 남도 산수처럼 녹여낸 작품 21점을 선보인다.

제희갤러리는 김 교수에 이어 사진작가인 경일대 구분창 교수를 초대했다. 구 교수는 80년대 중후반 추상화 같은 사진을 선보이며 국내에 현대사진을 정착시킨 작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연일 계속되는 전시 일정에 초대 조차 힘든 소위 '살나가는 두 작가'가 제희갤러리에서 전시를 여는 이유는 '예술'과 '쉽'의 공존이라는 갤러리 오픈 취지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두 작가는 전시에 앞서 갤러리를 방문했고, 공간 일정을 조깅했다고 한다.

제희갤러리 디렉터를 맡고 있는 신수정씨는 "광주지역 갤러리들이 같은 작가의 같은 작품을 전시하는 경향이 강해 일반인들이 다양한 미술을 접하기 힘들다"며 "광주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폭넓은 전시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두 대의 피아노... 하나의 울림

광주피아노두오협회 정기연주회, 24~25일 문예회관

'네 개의 손으로 들려주는 피아노 음악.' 광주피아노두오협회(회장 서영화·사진) 정기연주회가 오는 24일(오후 7시30분), 25일(오후 5시) 두차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18세기 작곡가 바하부터 현대 작곡가 윌리엄 볼름의 곡까지 전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곡들을 선보인다.

24일에는 김은애·조지영, 박행숙·정환숙, 최루시아·권성혜, 김명·서영화, 유정아·황미



경, 기영은·박지현씨가 짝을 이뤄 생상의 '스케르조 작품 87', 스트라빈스키의 '페르투슈카 주

제에 의한 세 개의 모멘트' 등을 연주한다.

25일 연주회 출연진은 강나영·김수현, 김윤진·김현정, 홍정민·이기미, 정은순·구복희, 김자영·박제희씨로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545', 볼름의 '에텐 동산'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에스파리아 카푸리치오 작품 34' 등이다. 21~22일에는 제주도에서 제2회 두오협회 세미나도 열린다. 문의 010-3642-1621.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신양파크호텔 가정의 달 페스티벌

가족·스승 동반 이벤트 | 행사기간 2013. 5. 1(수) ▶ 5. 31(금)

행사1 중식당 SET메뉴, 일반식사
4인 이상 드실 경우 1인무료

<특별메뉴> (다사이즈 주문시(사사이즈 가격 적용 판매)
돼지고기탕수육(대) → ₩41,800 → ₩30,800
전 가 복(대) → ₩82,500 → ₩60,500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2 양식당 스테이크 (안심/등심)
4인 이상 드실 경우 1인무료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3 중식당&양식당
이용고객 경품추첨
(당일 명함 수거 및 번호 배부 추첨)
5월 3일~10일, 15일 스승의 날
17일 석가탄신일, 21일 부부의 날
(점심) 오후 2시 (저녁) 오후 8시 추첨
레스토랑 상품권 각 1매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웨딩 Special 이벤트!!

7~8월 웨딩 확정시 **특별할인가격**

뷔페 33,000원 ~ 스테이크 38,500원 ~

Membership 신설 신양파크호텔의 품격있는 VIP로 초대합니다

- ① 휘트니스 Gold 멤버십 (보증금 6개월 : 125만원 1년 : 248만원)
- ② First Class 포시즌 멤버십 297,000원

Shin Yang Park Hotel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